한국인 사회의식
심층분석 보고서

Kstat Report

88호 ‖ 2023년 12월 7일

연말특집 ①
국민기억으로 보는 2023년

■ 2023년 분기별 가장 기억나는 사건

_ 1분기 : '마스크착용 해제'와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
_ 2030세대 '마스크 해제', 4060세대 '이재명 체포안 부결' 1위

_ 2분기 : "만 나이' 통일 시행'과 '전세사기 피해 확산'
_ 성/연령 및 이념과 무관하게 거의 비슷하게 기억

_ 3분기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새만금 잼버리' 부실 운영'
_ '대통령 처가 땅 논란', 계층별 기억 차이 커

_ 4분기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빈대 공포 확산'
_ '공매도 한시적 중지', 세대별로 기억 달라

■ 2023년 전체 가장 기억나는 사건

_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1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2위
_ 국민기억에 강하게 남은 사건, 3분기 많아
_ 계층별로 기억나는 사건, 세대와 이념별로 달라

■ 2023년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_ 작년보다 '나빠졌다'는 비중, 해마다 높아져

Kstat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3년 12월 1일(금) ~ 12월 3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 본 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31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3.05%p
가 중 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3년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Kstat
케이스탯

2023년 분기별 가장 기억나는 사건

❑ 1분기 : '마스크착용 해제'와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

● 2023년 올해 1분기에 있었던 사건 중 국민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대중교통,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35%)이고, 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3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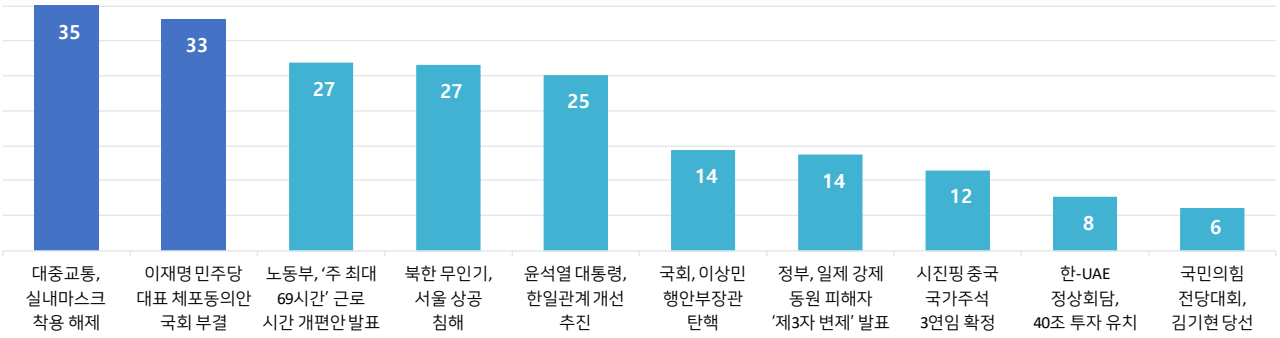
- 1분기(1~3월) 주요 사건으로 다음과 같이 10개를 제시했으며, 이 중 2개를 고르도록 한 결과임

① 대중교통,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② 국회,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③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
④ 국민의힘 전당대회, 김기현 당선
⑤ 정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발표
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연임 확정
⑦ 노동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⑧ 윤석열 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추진
⑨ 북한 무인기, 서울 상공 침해
⑩ 한-UAE 정상회담, 40조 투자 유치

● 다음은 '노동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와 '북한 무인기, 서울 상공 침해'가 공히 27%로 뒤를 이었고, 그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추진'(25%)이었음

● 가장 적은 응답을 기록한 사건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김기현 대표 당선'(6%)이고, 다음은 '한-UAE 정상회담, 40조 투자유치'(8%),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연임 확정'(12%) 순이었음

가장 기억나는 사건, 2023년 1분기(복수응답)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3.12.03조사,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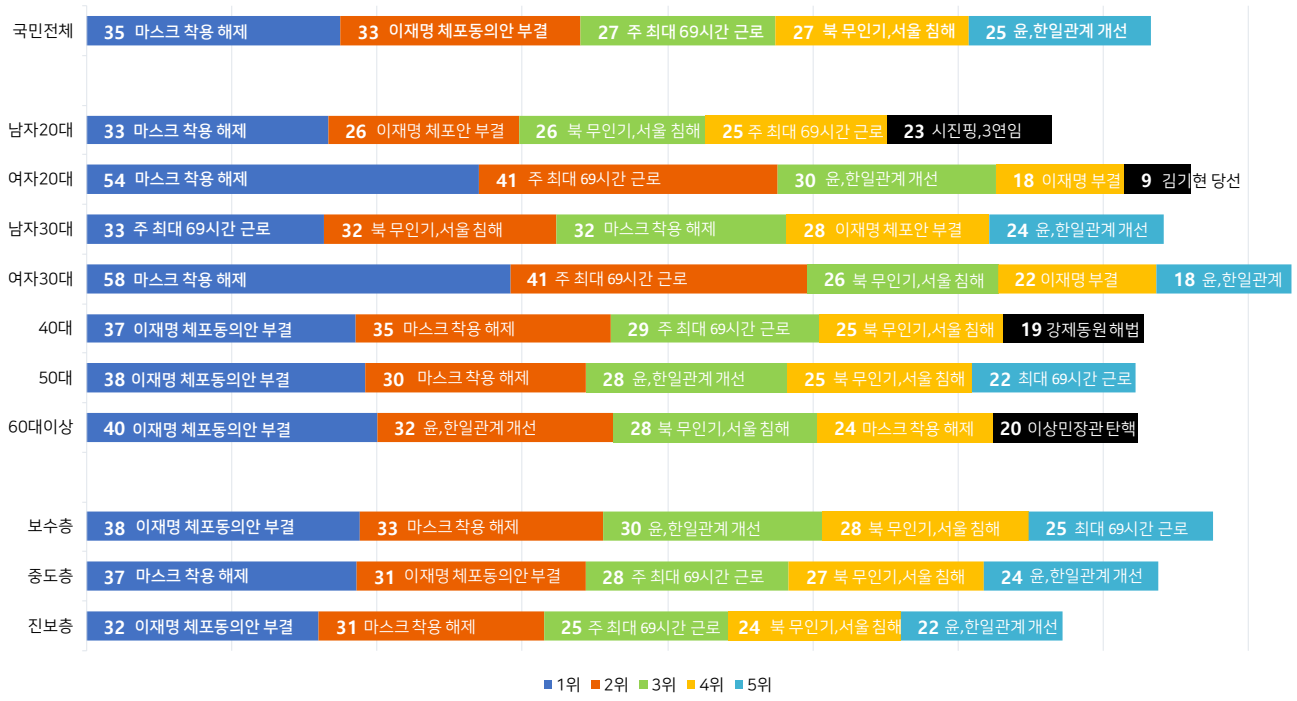
☑ 2023년 1분기에 가장 기억나는 사건은 '마스크 착용 해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로 나타남
: '마스크 착용 해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되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국민적 기억에 남은 것으로 보임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의 경우 검찰수사의 정당성 여부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맞물려 큰 이슈가 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참고로 케이스탯이 조사를 시작한 2020년 부터의 1분기 가장 기억나는 사건은 다음과 같음
: 2020년 1분기, 코로나19 감염병 발생(83%) / 마스크 대란 및 구매5부제 시행(36%)
: 2021년 1분기,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60%) / LH직원 신규택지 투기의혹 사건(48%)
: 2022년 1분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71%) / 윤석열 대통령 당선(57%)
(자료 : 케이스탯 리포트 『국민기억으로 보는 2020년』(2020년 12월 10일자) / 『국민기억으로 보는 2021년』(2021년 12월 9일자) / 『국민기억으로 보는 2022년』(2022년 12월 8일자))

❑ 2030세대 '마스크 해제', 4060세대 '이재명 체포안 부결' 1위

- 1분기 가장 기억나는 사건에 대한 계층별 응답을 살펴보면, 국민전체적으로 기억나는 상위 5개 사건은 같고, 순위만 다름
  - 2030세대는 '마스크 착용 해제'가 1위인데 비해, 4060세대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이 1위를 기록함
  - 30대 남자만 예외적으로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1위를 기록함
  - 이념별로는 보수층과 진보층에서 1위 사건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이고, 중도층에서는 '마스크 착용 해제'였음
- 계층별 응답에 있어, 국민전체 상위 5개 사건과 다른 사건을 주목한 계층은 다음과 같음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막대는 국민전체 상위 5위에 속하지 않은 사건을 의미함
  - **남자 20대 : '시진핑 주석 3연임'** ('윤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대체)
  - **여자 20대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당선'** ('북한 무인기, 서울상공 침해' 대체)
  - **40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정부 해법'** ('윤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대체)
  - **60대 이상 :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주 최대 69시간 근로' 대체)

가장 기억나는 사건, 2023년 1분기(복수응답) : 국민전체,성/연령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12.03조사,단위:%)



Kstat Point

☑ 2023년 1분기를 대표하는 사건에 대한 기억이 2030세대와 4060세대가 다름
: 2030세대는 '마스크 착용 해제'이고, 4060세대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임
: 2030세대에 비해 4060세대가 상대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더 높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로 분석됨
: 또, 보수·진보층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이 1위이고, 중도층은 '마스크 착용 해제'가 1위인것도 정치에 대한 관심도 차이 때문으로 보임

☑ 정치·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던 '윤석열 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추진'의 경우, 계층별로도 중요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음
: 남자 20대만 상위 5개에서 빠졌고, 40대는 비슷한 이슈인 '정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발표'에 더 주목한 정도의 차이였음

❑ 2분기 : "만 나이' 통일 시행'과 '전세사기 피해 확산'

- 2분기에 가장 기억나는 사건은 "만 나이' 통일 시행'과 '전세사기 피해 확산'이 공히 51%로 1위이고, 다음은 '누리호 3차 발사 성공'(32%)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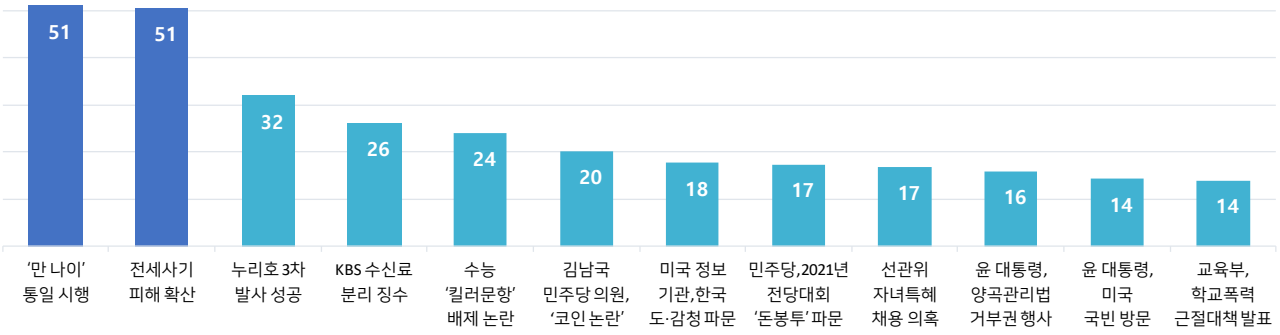
- 2분기(4~6월) 주요 사건으로 다음과 같이 12개를 제시했으며, 이 중 3개를 고르도록 함

①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②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발표
③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
④ 미국 정보기관, 한국 도·감청 파문
⑤ 전세사기 피해 확산
⑥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⑦ 김남국 민주당 의원, '코인 논란'
⑧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⑨ 선관위 자녀특혜 채용 의혹
⑩ KBS 수신료 분리 징수
⑪ 수능 '킬러문항' 배제 논란
⑫ '만 나이' 통일 시행

- 그 다음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26%), '수능 '킬러문항' 배제 논란'(24%), '김남국 민주당 의원, '코인 논란'(20%) 등으로 조사됨

- 가장 응답이 적은 사건은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발표'와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이 공히 9%로 나타났고, 다음은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16%)로 나타남

가장 기억나는 사건, 2023년 2분기(복수응답)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3.12.03조사,단위:%)



Kstat Point

☑ 2023년 2분기에 가장 기억나는 사건은 "만 나이' 통일 시행'과 '전세사기 피해 확산'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임
: "만 나이' 통일 시행'은 여러가지 나이를 혼용하던 그간의 관습이, 새롭게 바뀌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으로 보임
: 또 '전세사기 피해 확산'은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나'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한편, 2분기에 있었던 다양한 정치 이슈들에 대한 기억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코인논란"과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음
: 한편,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미국 국빈 방문)들도 낮은 비중을 기록함

☑ 참고로 케이스탯이 조사를 시작한 2020년 부터의 2분기 가장 기억나는 사건은 다음과 같음
: 2020년 2분기, 긴급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44%) / 21대 국회의원 선거, 여당 압승(26%)
: 2021년 2분기, 부동산가격 상승세 지속(44%) / '미나리' 윤여정,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41%)
: 2022년 2분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시대(42%) /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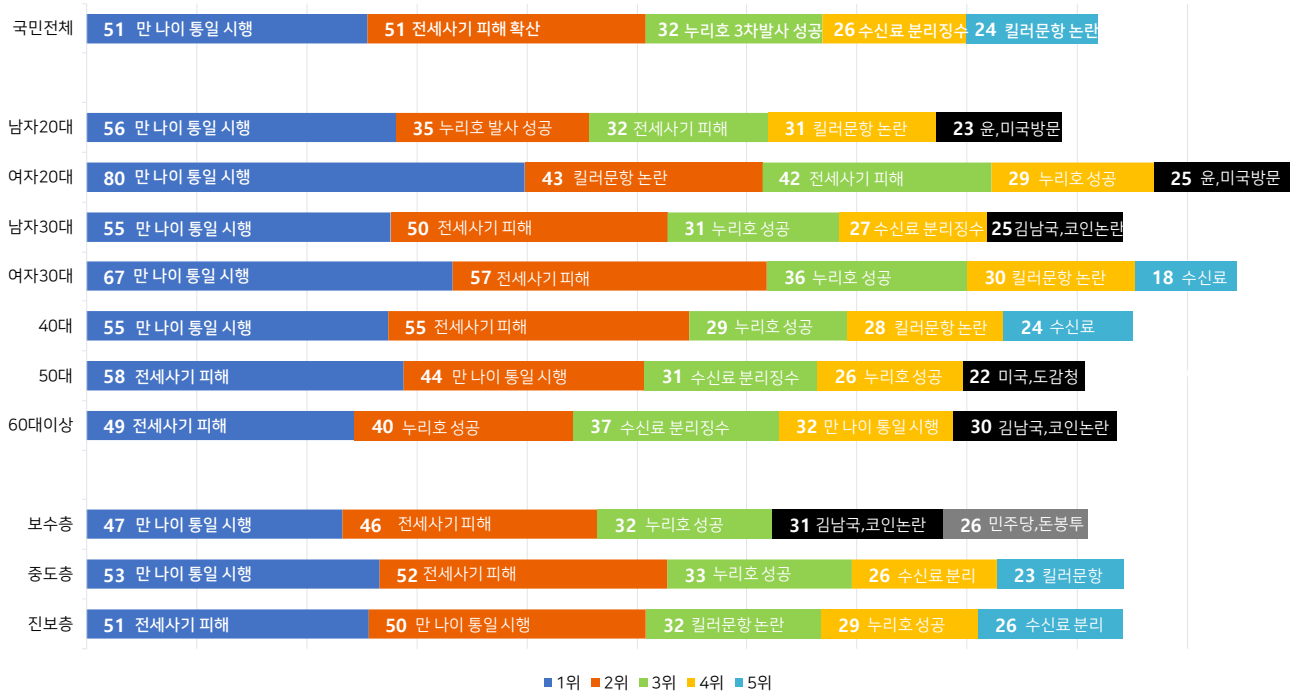
❑ 성/연령 및 이념과 무관하게 거의 비슷하게 기억

- 2분기 가장 기억나는 사건에 대한 계층별 응답을 살펴보면, 대체로 국민전체와 비슷한 가운데 일부 사건만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남
  - 거의 모든 계층에서 "만 나이' 통일 시행'과 '전세사기 피해 확산'이 1위를 기록함
- 계층별 응답에 있어, 국민전체 상위 5개 사건과 다른 사건을 주목한 계층은 다음과 같음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막대는 국민전체 상위 5위에 속하지 않은 사건을 의미함

- **남자 20대 :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대체)
- **여자 20대 :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대체)
- **남자 30대 : '김남국 의원 '코인논란"** ('수능 '킬러문항' 배제 논란' 대체)
- **50대 : '미국 정보기관, 한국 도·감청 파문'** ('수능 '킬러문항' 배제 논란' 대체)
- **60대 이상 : '김남국 의원 '코인논란"** ('수능 '킬러문항' 배제 논란' 대체)

- **보수층 : '김남국 의원 '코인논란" /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수능 '킬러문항' 배제 논란' 대체)

가장 기억나는 사건, 2023년 2분기(복수응답) : 국민전체,성/연령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12.03조사,단위:%)



Kstat Point

☑ 2분기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계층별로도 "만 나이' 통일 시행'과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많이 기억함
: 그만큼 이 두가지 사건이 사회적으로 미친 파장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됨

☑ 다만, 20대 남녀는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을 기억하는 특징을 보이고, 남자 30대와 60대이상은 '김남국 의원 '코인논란"을 기억하며, 50대는 '미국 정보기관, 한국 도·감청 파문'을 기억하는 차이를 나타냄

☑ 이념별 기억을 보면, 중도층과 진보층은 국민전체와 기억을 공유하는데 비해, 보수층은 '김남국 의원 '코인논란"과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을 기억하는 차이를 드러냄
: 두가지 사건 모두 민주당에 부정적인 사건인데, 민주당에 부정적인 보수층의 정치적 시각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3분기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새만금 잼버리' 부실 운영'

- 국민들이 3분기에 가장 기억나는 사건으로 꼽은 것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47%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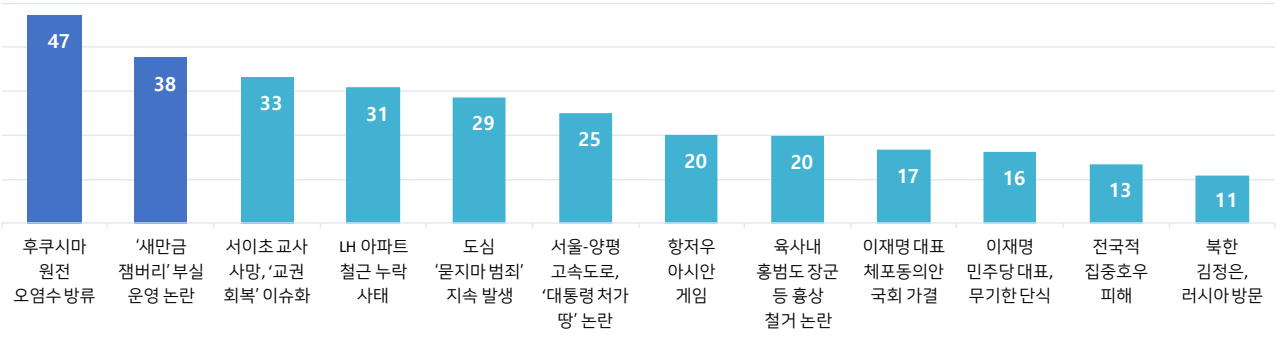
- 3분기(7~9월) 주요 사건으로 다음과 같이 12개를 제시했으며, 이 중 3개를 고르도록 한 결과임

①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땅' 논란
② 전국적 집중호우 피해
③ 서이초 교사 사망, '교권 회복' 이슈화
④ '새만금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
⑤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⑥ 도심 '묻지마 범죄' 지속 발생
⑦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⑧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무기한 단식
⑨ 육사내 홍범도 장군 등 흉상철거 논란
⑩ 북한 김정은, 러시아 방문
⑪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⑫ 항저우 아시안게임

- 다음은 "새만금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38%), '서이초 교사 사망, '교권 회복' 이슈화'(33%),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31%), '도심 '묻지마 범죄' 지속 발생'(29%) 등이었음

- 가장 응답이 적은 사건은 '북한 김정은, 러시아 방문'(11%)이고, 다음은 '전국적 집중호우 피해'(13%),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무기한 단식'(16%) 등임

가장 기억나는 사건, 2023년 3분기(복수응답)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3.12.03조사,단위:%)



Kstat Point

☑ 2023년 3분기에 가장 기억나는 사건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 큰 이슈였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높은 비중으로 1위를 기록함
: 현재는 관련 언론보도가 줄어드는 등 관심도가 낮아졌으나, 국민적 기억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새로운 뉴스가 발생할 경우 재차 관심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새만금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이 2위를 기록한 것은, '국제적 명성'을 중시하는 국민정서 때문으로 분석됨
: 이의 연장선에서 최근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부산이 낮은 득표를 한 것에 대해, 국민적 실망감이 클 것으로 보임

☑ 한편, 정치권의 핵심 이슈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무기한 단식'과 '육사내 홍범도 장군 등 흉상 철거 논란'은 낮은 비중을 기록함
: 정치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와 국민전체가 중시하는 이슈가 겹치는 경우도 있지만, 괴리되는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음

☑ 참고로 케이스탯이 조사를 시작한 2020년 부터의 3분기 가장 기억나는 사건은 다음과 같음
: 2020년 3분기, 박원순 시장 사망 및 성추행 논란(60%) / 부동산가격 급등, 부동산정책 논란(39%)
: 2021년 3분기,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세계 1위(59%) / 이재명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보도 논란(33%)
: 2022년 3분기, 일본 아베 전 총리 피격 사망(49%) / 윤 대통령,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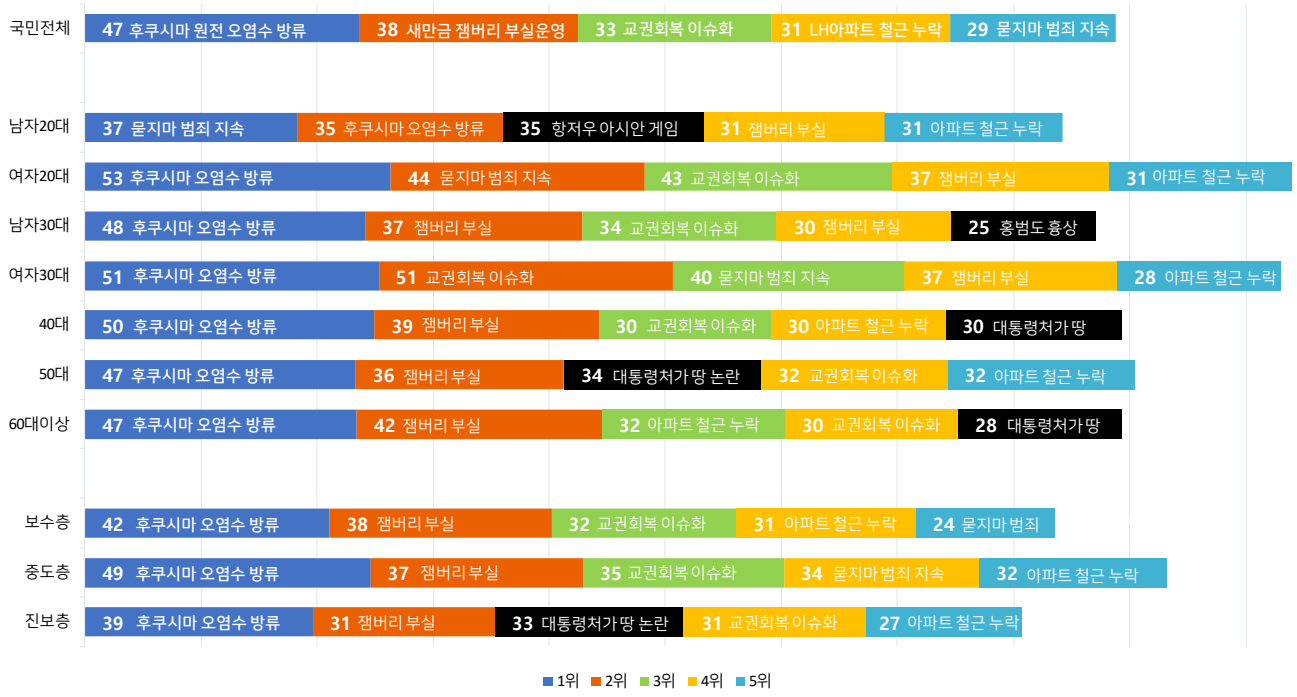
❑ '대통령 처가 땅 논란', 계층별 기억 차이 커

- 3분기 가장 기억나는 사건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거의 모든 계층에서 1위를 기록함
  - 다만, 남자 20대는 '도심 '묻지마 범죄' 지속 발생'이 근소한 차이로 1위를 기록함
- 국민전체 상위권 사건과 계층별 상위권 사건이 다른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막대는 국민전체 상위 5위에 속하지 않은 사건을 의미함

- **남자 20대 : '항저우 아시안게임'** ('서이초 교사 사망, '교권 회복' 이슈화' 대체)
- **남자 30대 : '육사내 홍범도 장군 등 흉상철거 논란'** ('도심 '묻지마 범죄' 지속 발생' 대체)
- **40대 :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땅' 논란'** ('도심 '묻지마 범죄' 지속 발생' 대체)
- **50대 :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땅' 논란'** ('도심 '묻지마 범죄' 지속 발생' 대체)
- **60대 이상 :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땅' 논란'** ('도심 '묻지마 범죄' 지속 발생' 대체)

- **진보층 :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땅' 논란'** ('도심 '묻지마 범죄' 지속 발생' 대체)

가장 기억나는 사건, 2023년 3분기(복수응답) : 국민전체,성/연령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12.03조사,단위:%)



Kstat Point

☑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땅' 논란'에 대한 계층별 기억 차이가 큼
: 2030세대에서는 상위 5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4060세대에서는 포함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적 관심도가 높은 4060세대는 '대통령 처가 땅 논란'을 민감하게 기억하고 있음
: 이념별로는 보수층과 중도층에서는 상위 5위에 없지만, 진보층에서는 3위를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데, 현 정부에 비판적인 진보층의 시각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됨

☑ 한편,'도심 '묻지마 범죄' 지속 발생'에 대한 성/연령별 차이도 주목되는 지점임
: 남녀 20대와 여자 30대는 중요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그외 연령층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지 않음

❑ 4분기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빈대 공포 확산'

- 4분기에 가장 기억나는 사건으로는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전쟁'이 높았고(57%), 다음은 '빈대 공포 확산'(41%)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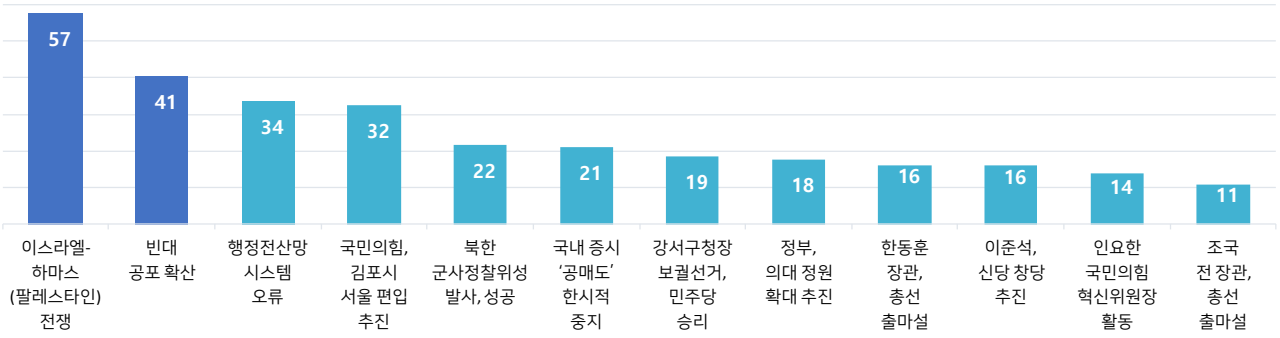
- 4분기(10~12월 현재) 주요 사건으로 다음과 같이 12개를 제시했으며, 이 중 3개를 고르도록 한 결과임

①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전쟁
②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 승리
③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추진
④ 국민의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⑤ 국내 증시 '공매도' 한시적 중지
⑥ 빈대 공포 확산
⑦ 행정전산망 시스템 오류
⑧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
⑨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활동
⑩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설
⑪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설
⑫ 이준석 신당 창당 추진

- 다음은 '행정전산망 시스템 오류'(34%), '국민의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32%) 순이었음

- 가장 응답이 적은 사건은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설'(11%)이고, 다음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활동'(14%) 등임

가장 기억나는 사건, 2023년 4분기(복수응답)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3.12.03조사,단위:%)



Kstat Point

☑ 2023년 4분기에 가장 기억나는 사건은 지금도 진행중인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조사됨
: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국제적 이슈이자 '전쟁 상황'이 남북대치 상황과 겹치면서 국민들에게 '가깝게' 인식된 결과로 보임

☑ 또한, '빈대 공포 확산'이 2위를 기록한 것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건이기 때문으로 보임
: 국내에서는 오래도록 '빈대'에 대한 피해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빈대 공포'가 부각되면서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정치권 이슈인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설'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활동', '이준석, 신당 창당 추진',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설' 등은 낮게 나타남
: 다만, 이들 이슈들 모두가 총선과 관련된 이슈라는 점에서,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올수록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참고로 케이스탯이 조사를 시작한 2020년 부터의 4분기 가장 기억나는 사건은 다음과 같음
: 2020년 4분기, 미국대통령선거, 바이든 당선(52%) /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논란(37%)
: 2021년 4분기, '위드 코로나'(일상회복) 시행(41%) /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38%)
: 2022년 4분기, 이태원 핼러윈 참사(77%) / 카타르 월드컵 개막(45%)

❑ '공매도 한시적 중지', 세대별로 기억 달라

● 4분기 가장 기억나는 사건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전쟁'이 거의 모든 계층에서 1위를 기록함

- 다만, 여자 2030세대에서는 '빈대 공포 확산'이 1위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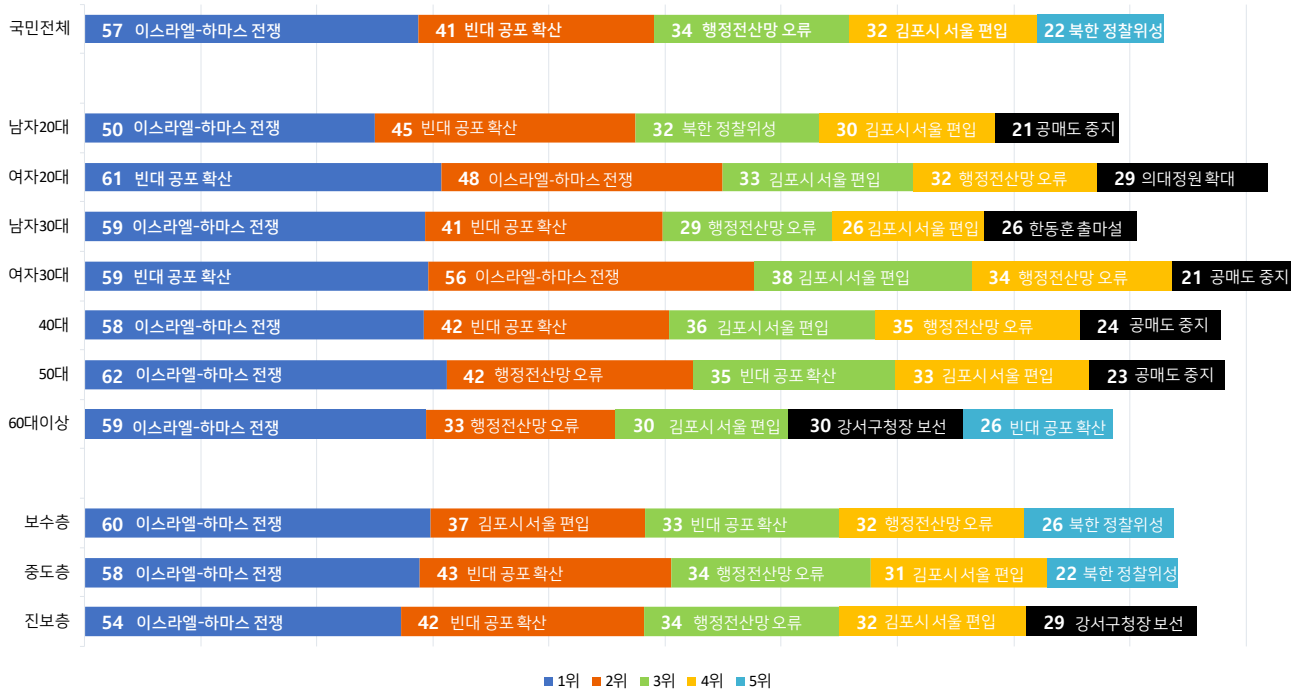
● 국민전체 상위권 사건과 계층별 상위권 사건이 다른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막대는 국민전체 상위 5위에 속하지 않은 사건을 의미함

- **남자 20대 : '국내 증시 '공매도' 한시적 중지'** ('행정전산망 시스템 오류' 대체)
- **여자 20대 :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 대체)
- **남자 30대 :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설'**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 대체)
- **여자 30대 : '국내 증시 '공매도' 한시적 중지'**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 대체)
- **40대 : '국내 증시 '공매도' 한시적 중지'**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 대체)
- **50대 : '국내 증시 '공매도' 한시적 중지'**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 대체)
- **60대 이상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 승리'**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 대체)

- **진보층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 승리'**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 대체)

가장 기억나는 사건, 2023년 4분기(복수응답) : 국민전체,성/연령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12.03조사,단위:%)



Kstat Point

☑ 계층별 기억에 있어 '국내 증시 '공매도' 한시적 중지' 사건에 대한 차이가 있음
: 남자 20대와 여자 30대, 그리고 4050세대에서는 '공매도 중지'가 중요한 이슈였던 것으로 보임
: 또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 승리'의 경우 60대이상과 진보층에서 중요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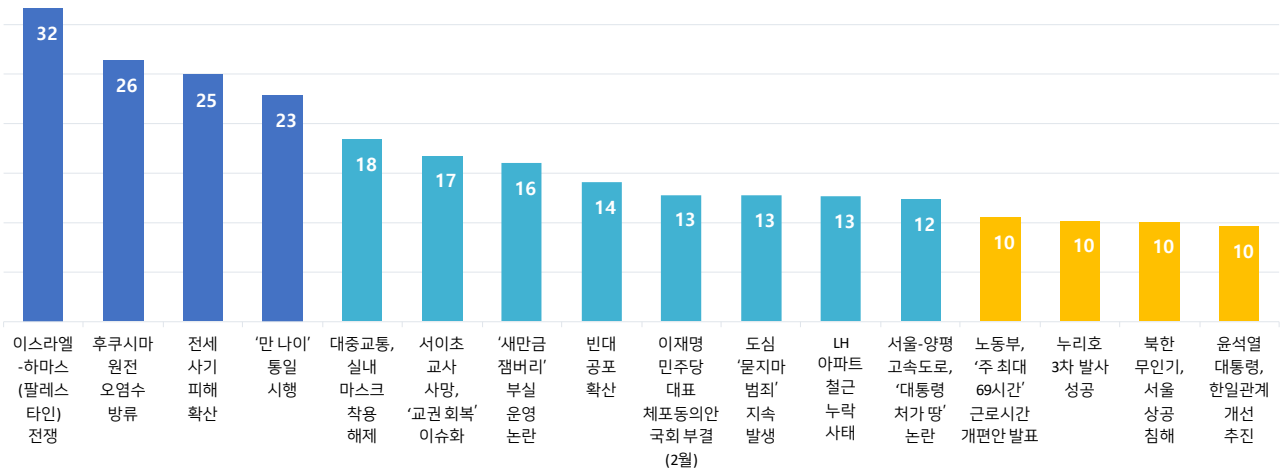
☑ 한편, 남자 30대에서 유일하게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설'이 상위 5위에 속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여자 20대는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이 유일하게 상위권에 오른 점이 특이함

2023년 전체 가장 기억나는 사건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1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2위

- 2023년 전체에서 가장 기억나는 사건은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전쟁'(32%)으로 나타남
  - 각각의 응답자가 '분기별 가장 기억나는 사건'으로 선정한 사건들을 모두 제시하고, 그중 가장 기억나는 사건 4개를 고르도록 한 결과임
- 다음으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26%), '전세사기 피해 확산'(25%), "만 나이' 통일 시행'(23%) 순임
- 그 뒤를 이어 '대중교통,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18%), '서이초 교사 사망, '교권 회복' 이슈화'(17%), "새만금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16%) 등으로 조사됨

2023년 전체 '가장 기억나는 사건'(복수응답)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3.12.03조사,단위:%)



Kstat Point

☑ 우리 국민이 2023년 올 한해 가장 기억나는 사건으로 꼽은 것은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최근 발생한 사건이자 남북대치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다음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전세사기 피해 확산', "만 나이' 통일 시행'이 뒤를 이음
: 이중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전세사기 피해 확산'은 현재 진형형이기에 계속 국민적 관심사로 유지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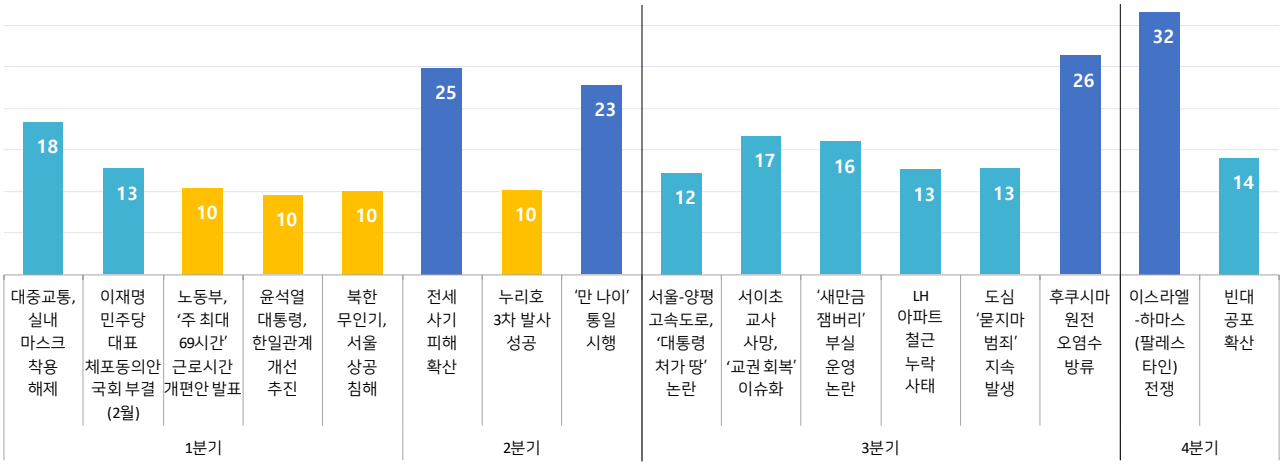
☑ 상위 16위까지의 사건 중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건은 2개('처가 땅 논란', '한일관계 개선)에 그침
: 2022년의 경우 상위 17개 중 4개였으나, 2023년에는 그 빈도가 줄어들었음

☑ 참고로 케이스탯이 조사를 시작한 2020년 부터의 1년 전체 기억나는 사건은 다음과 같음
: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발생(66%) / 박원순 시장 사망 및 성추행 논란(25%)
: 2021년,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세계 1위(30%) / 국내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26%)
: 2022년, 이태원 핼러윈 참사(64%)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51%)

❑ 국민기억에 강하게 남은 사건, 3분기 많아

- 국민들이 가장 기억나는 사건을 2023년 시기별로 재정렬한 결과, 횟수로는 1분기와 3분기에 많은 사건이 발생함
  - 앞서의 2023년 전체 '가장 기억나는 사건'을 시간 순서별로 재정렬한 결과임
- 하지만, 국민적 기억에 강하게 남은 사건은 2분기와 3분기, 4분기에 골고루 펼쳐져 있음
  - 1분기에는 '전세사기 피해 확산'과 "만 나이' 통일 시행'이 있었고, 3분기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4분기에는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전쟁'이 발생함
- 기억나는 사건 수와 비중 모두 고려할 때, 3분기가 높은 비중으로 기억되고 있음

2023년 전체 '가장 기억나는 사건'(복수응답) : 국민전체, 시기별 재정렬 (자료:케이스탯,2023.12.03조사,단위:%)



Kstat Point

☑ 2023년에 대한 국민기억을 시기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2023년은 대중교통과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로 코로나19 대유행을 종식시키면서 출발함
: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큰 이슈가 되었고, 노동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추진'이 논란을 빚는 가운데,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해가 주목받으면서 1분기가 마감됨

☑ 2분기에는 전세사기 피해 확산이 크게 부각되면서 전 사회적인 불안감이 확산됨
: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축하하면서 맞은, '만 나이' 통일 시행도 기억에 남는 사건임

☑ 3분기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땅' 논란을 시작으로 서이초 교사 사망 계기 '교권 회복'이 이슈가 됨
: 여기에 '새만금 잼버리' 부실 운영과 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하며 국민적 공분이 고조된 가운데, 도심에서의 '묻지마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가 유지됨
: 이러한 상황에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돼, 국민적 불안감이 더욱 고조됨

☑ 4분기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하면서 남북대치 상황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전쟁위기감이 커졌으며, 빈대 공포까지 확산되면서 3분기의 불안감이 계속 유지됨

☑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사건은 거의 없고 부정적인 사건이 많으면서,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고조된 2023년이였던 것으로 평가됨

❑ 계층별로 기억나는 사건, 세대와 이념별로 달라

● 2023년 전체 사건 중 계층별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다름

- 2030세대는 "만 나이' 통일 시행'을 가장 기억하고, 4060세대는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전쟁'을 가장 기억함
- 또, 보수층과 중도층은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전쟁'을 가장 기억하는데 비해 진보층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가장 기억하는 사건으로 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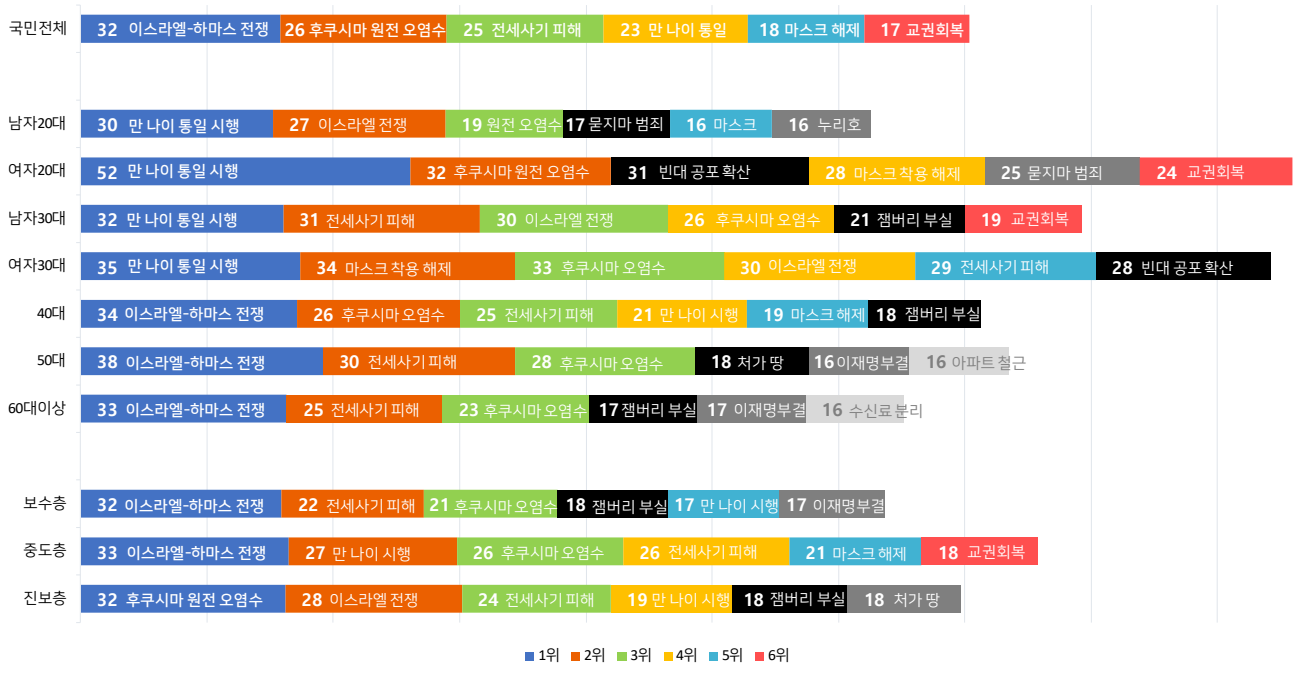
● 국민전체 상위권 사건과 계층별 상위권 사건이 다른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막대와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상위 6위에 속하지 않은 사건을 의미함

- **남자 20대 : '묻지마 범죄',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전세사기 피해', '교권회복 이슈화' 대체)
- **여자 20대 : '빈대 공포', '묻지마 범죄'** ('전세사기 피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대체)
- **남자 30대 : '잼버리 부실'** ('마스크 착용 해제' 대체)
- **여자 30대 : '빈대 공포'** ('교권회복 이슈화' 대체)
- **40대 : '잼버리 부실'** ('교권회복 이슈화' 대체)
- **50대 : '대통령 처가 땅', '이재명 체포안 부결', '아파트 철근 누락'** ('만 나이', '마스크', '교권회복 대체)
- **60대 이상 : '잼버리 부실', '이재명 체포안 부결', 'KBS 수신료 분리징수'** ('만 나이', '마스크', '교권회복 대체)

- **보수층 : '잼버리 부실', 이재명 체포안 부결'** ('마스크', '교권회복 대체)
- **진보층 : '잼버리 부실', '대통령 처가 땅'** ('마스크', '교권회복 대체)

2023년 전체 '가장 기억나는 사건'(복수응답) : 국민전체,성/연령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12.03조사,단위:%)



Kstat Point

☑ 모든 계층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기억하는 사건은 '이스라엘 전쟁', '후쿠시마 오염수', '전세사기 피해' 등임
: 그러나 2030세대가 중요하게 기억하는 '만 나이 시행'이 5060세대에서는 상위 6위에 없음
: 또한 여자 2030세대가 중시하는 '빈대 공포'의 경우 다른 계층에서는 관심도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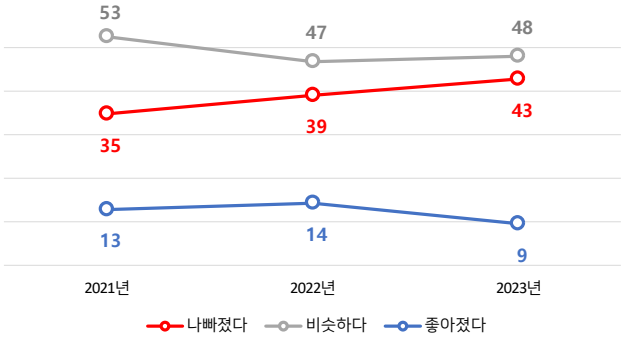
☑ 이렇듯 계층별로 중요하게 기억하는 사건이 다른 것은, 그 자체로 계층별 관심도 차이를 보여주는 것임
: 보수층은 '이재명 체포안 부결'을 기억하고, 진보층은 '대통령 처가 땅'을 기억하는 것도 관심의 차이 때문임

2023년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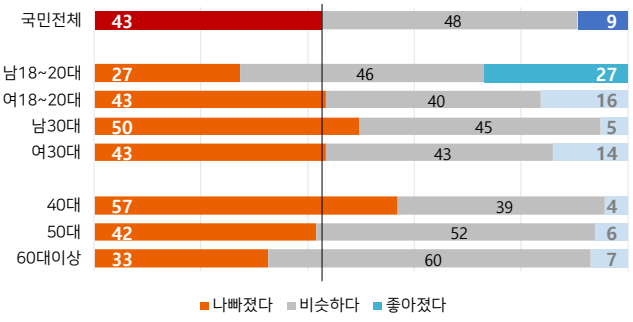
❑ 작년보다 '나빠졌다'는 비중, 해마다 높아져

- 우리 국민들은 올 한 해의 삶이 '작년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높은 가운데(48%), '나빠졌다' 43% vs '좋아졌다' 9%로 나타남
  - "2023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선생님의 삶이 작년(2022년)보다 좋아지셨어요, 나빠지셨어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그동안의 조사 추이를 보면, '나빠졌다'는 비중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음
  - 2021년 35%에서 2022년 39%, 올해(2023년) 43%로 계속 증가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나빠졌다'는 응답이 우세함
  - 남자 18~20대만 '나빠졌다'와 '좋아졌다'는 의견이 공히 27%로 같음
- '나빠졌다'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30대, 40대 △서울 △진보층 △자영업자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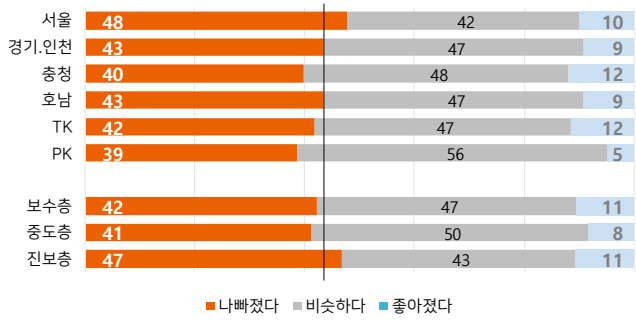
작년 대비 올해 삶 평가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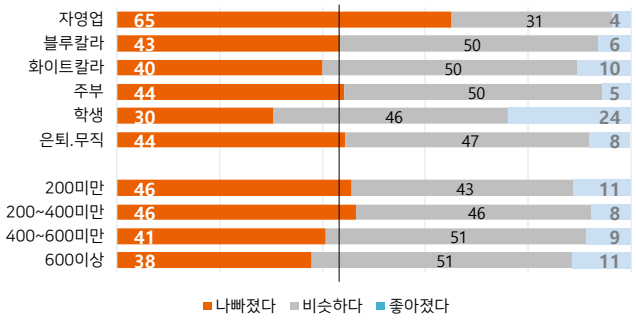
작년 대비 올해(2023년) 삶 평가 : 국민전체,성/연령별 (단위:%)



작년 대비 올해(2023년) 삶 평가 : 지역별,이념별 (단위:%)



작년 대비 올해(2023년) 삶 평가 : 직업별,소득별 (단위:%)



Kstat Point

☑ 2023년을 돌아보는 우리 국민들은 작년보다 삶이 '나빠졌다'는 비중이 43%에 달함
: 올해 특히 힘겨워하는 계층은 남자 30대와 40대, 서울, 그리고 자영업자들임

☑ 우려스러운 지점은 '나빠졌다'는 비중이 해가 갈수록 많아진다는 점임
: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삶이 팍팍해진 결과로 보임

☑ 내년, 2024년에는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와 희망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됨

Kstat 케이스탯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89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89호는『연말특집 ② 한국인 도덕 성향 측정 및 분석』이라는 주제로 12월 21일(목요일)에 발간되며,
케이스탯 2023년 12월 사회지표는 12월 14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